

[심의 개요]

- 일시/장소 : 2019. 7. 16.(화) 14:00~18:00,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2
- 심의사항 :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심의(32건)
- 심사위원 : 정철(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본부장), 김신아(예술경영지원센터 실장), 오진이(서울문화재단 전문위원), 박성완(노무사), 박소연(노무사)

1. 해당 사업의 지원 취지

2019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은 고용창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연수단원으로 채용된 후 동일 단체에서 근로계약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 입사 후 6개월간 월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함에 그 취지가 있음.

2. 심의 기준 / 가중치 및 심의 방법**가. 지원 대상자의 요건**

2018년도 연수단원 지원 사업 수행 단체 중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현재일까지 계속하여 근로 중인 단체에 해당하여야 함.

나. 심의 기준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구비한 단체가 제출한 입증서류 등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 여부’, ‘근로계약(근로조건)의 적정성’, ‘단체의 사업 수행 실적’ 등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심의함.

다. 심의 방법

- ① 정규직 전환 여부: 정규직 전환 여부는 지원 대상 근로자와 해당 단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기재된 근로계약기간 또는 고용형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라면 응당 가입하여야 할 4대 보험 가입 내역 및 가입 일자 등을 확인하였음.
- ② 근로계약(근로조건)의 적정성: 지원 대상 근로자와 해당 단체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급여 명세서 등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 ③ 단체의 사업 수행 실적: 지원 단체들은 2018년도 연수단원 지원 사업에 참가한 단체이며, 채용 대상자들은 해당 사업에서 연수단원으로 채용된 자들인 바, 채용 대상자들이 행한 지원 단체들의 평가 점수를 사업 수행 실적 기준으로 판단하였음.

3.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중점사항 고려사항(사업의 특성, 예술계 주요 이슈, 시장 현황 등)

- 심의를 통해 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월 임금 대장 등을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는 지원 단체는 승인하여, 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음.
- 위와 달리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정황 또는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명칭이 계약직 등으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의 사례가 존재하는 바, 이는 지원 단체의 관리 인력의 부재로 인한 단순한 오기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심의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이에 따라 이러한 지원 단체들의 경우에는 고용 형태에 대한 사실관계 및 입증서류에 대한 재확인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건부로 승인하였음.

○ 해당 사업은 국고 지원 사업으로서, 단순히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계 잘못된 고용 관행 등을 개선하는 등의 사회적 책무도 같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체 또한 이러한 책무를 공통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지원 요건이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머물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해당 단체 자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어야 할 것이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① 해당 단체의 대표자 또는 단체 구성원들이 성추행 등 성추문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발생한 경우
- ② 해당 단체에서 지원금 최근 2~3년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있는 경우
- ③ 해당 단체가 객원 출연자 등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등

○ 문화예술 인력 단체의 특성상 인사, 노무 관리 인력이 전무하거나, 있더라도 그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바, 연수단원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근로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효성과 근로조건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예산 배분 등 심의 결과 요약

조건부 승인 단체를 포함하여 총 31단체, 총 지원 대상 인원 35명, 총 지원금 171,857,075원으로 결정하였음. 다만, 조건부 승인 단체들이 입증서류 등이 미비되는 경우 대상 인원 및 지원금은 소폭 감소될 수 있음.

5. 소회 및 당부 사항

문화예술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며, 일정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타 분야에 비하여 장기간에 소요된다는 점, 지원 단체들이 자체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등의 사례가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단체에서 근무하는 문화인력 또한 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문화계 유입되는 신규 인력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지원 사업은 문화계의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키는 효과와 임금 인상 효과로 인하여 신규 인력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성이 출중한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따라서 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좀 더 많은 예술단체들이 이러한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것을 희망함.

[2019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심의위원 일동]